



"메밀이 세 모라도 한 모는 쓴다더니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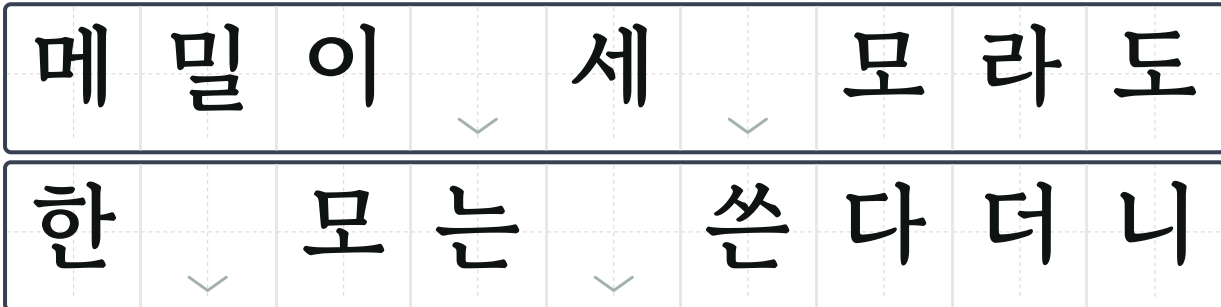
뜻: 평소에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물건도 언젠가는 꼭 한 번은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쓸모 · 가치 ·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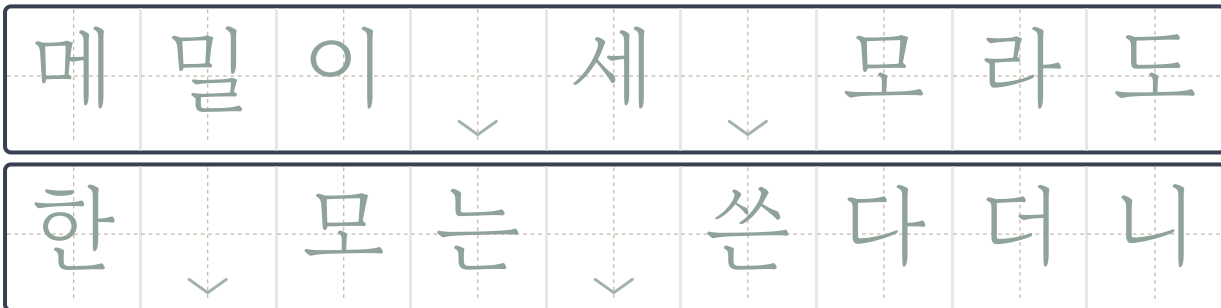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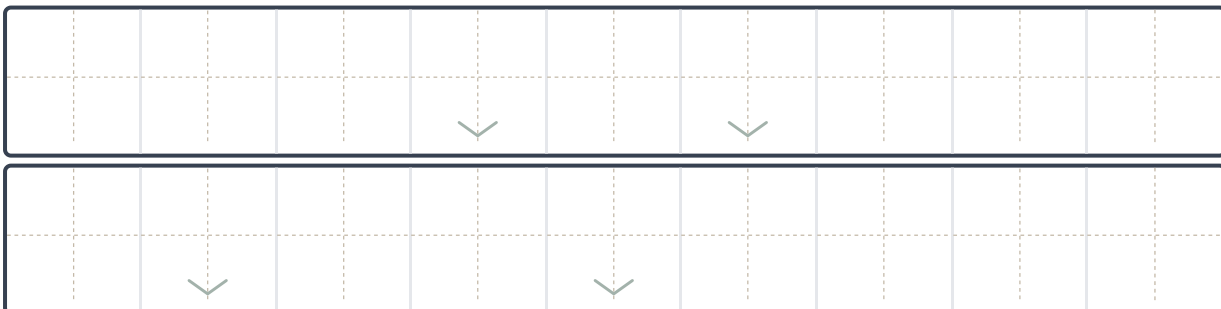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모미] [세] [모라도] [한] [모] [쓴다더니]

웹에서 보기

